

## 산양루기(山仰樓記)

1988\_김영완(金永玩) 지음\_40.0×100.0cm



1988년 원장 이명재의 주도로 산양루를 보수한 사항과 이에 대한 감흥을 기록한 것이다. 산양루기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이명재가 민간 및 정부의 도움으로 산양루를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산양루가 중건되기 전 내용으로 해당 산양루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山仰樓記

孔孟程朱之道東行 而聖賢之道 燦然復明於世 愛親敬長之義 修齊治平之道 興行于世 文物彬彬 禮樂郁郁 國泰民安 謳歌聖德. 至于近世洋夷之行變風移俗 聖賢之道幾乎掃地而盡 士不興行而久矣 然而民之秉彝 極天罔墜 天生斯民 必有先覺 尼山之南 艮山之東 乃文元公沙溪金先生 杖屨之鄉 後生講道之所也 先生之後 距今三百有六十餘年 誦其詩 讀其書 能使後人有所興起 又況親炙之者乎 於此可見先生之道學精髓入人也 深感人也遠矣 本院內 山仰樓歲久年( ) (木+架)以風雨所襲 間(木+架)滲漏 棟宇敗朽 每擬改修 事力不贍 戰兢之餘 李明濟 甫其先子遺訓繼志 始任此院 慨恨于斯 先公後私 周旋當局 方鳩巨貲 易其棟椽 新其軒窓 樓臺刷新 瞻仰欣豔 噫 洵季乾坤 世遠人亡 異端邪說 日新月盛 塗人耳目 換人心膺 滔滔然趨于利慾 駸駸然 入于異端 不知所屆 況聖賢之堂宇乎 雖世衰道 微斯道否塞 然告朔之禮 存羊之義 幸存而不泯者 是吾儒林之幸也 今日之盛舉 足以喚醒世人之心目 將俾後人高山仰之景行之庶幾 有補矣役已畢 囑余記其實 固辭不獲 惟利樂行人之善意 略識如右云

檀紀四千三百二十一年 戊辰 月 日

光山 金永玩 謹識

### 산양루기[山仰樓記]

공맹정주의 도가 동쪽으로 전하여져 선현의 도가 찬연히 다시 세상에 밝아졌도다.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의리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도가 세간에 흥행하여, 문물이 더욱 빛나고 예악이 널리 퍼져 국태민안하니 성인의 덕을 구가하게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서쪽 오랑캐가 들어와 풍속을 변이시켜 성현의 도가 땅에서 사라지고 선비가 다하여 동방의 도가 일어나지 않음이 오래 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병이가 만고에 항상 존재하니 하늘이 백성을 낳음에 반드시 선각자를 내니 니산(尼山)의 남쪽, 간산(艮山)의 동쪽, 곧 문원공 사계 김장생 선생의 고향이니 후생들에게 도를 가르치던 곳이다.

선생이 가신 후 거금(距今) 360여년이 흘러도, 남가신 시를 읊조리고 남가신 저서를 읽으며, 능히 후인들의 학문을 흥기하게 하니 하물며 친분을 맺어 친히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야 말해서 무엇하리오. 여기에 선생의 도학 정수가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있음을 알수 있으니 사람을 감읍시킨지 오래되었다.

본 서원내 산양루가 오래되어 시령(筴+架)이 비바람이 엄습하여 시령(木+架)사이엔 물이 새고 옹마루와 지붕이 썩어 매년 개수하였으나, 사력이 넉넉지 않아 전전공궁하던 차에, 이명재가 그 선자의 유훈과 뜻을 이어받아 이 서원 원장에 보임되었을 때 이를 한탄하여 선공후사의 부지런함으로 당국에 주선하고 민심을 이끌어 거금을 모아 옹마루와 석가래를 바꾸고 추녀와 창을 새로 달고 누대를 채신하니 우리러 보아 기뻐함이 용솟음 쳤다.

아!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여 어지러운 세상, 세월이 멀리 흘러 어진이들 다 돌아가시고, 이단사설들이 나날이 성하여져 백성들의 이목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사람의 인심을 몰아 도도연하게 이욕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짐이 더할 나위없이 빨라져서, 사람이 이를 곳을 알지못하니 하물며 성현을 모신 당우에서야 말할 나위가 있으리오?

비록 세상에 도는 쇠하고 수제치평의 대도가 막혀 미미함에 이르렀으나, 삭망과 춘추에 향사를 올리는 의례가 다행이 끊이지 않고 면면함은, 우리 유림들의 크나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금일의 성대한 거사가, 죽히 세상의 인심을 불러 일깨워 장차 후인들이 높은 산처럼 우러르고 밝은 덕행[德行]을 행해 가기를 바랄 뿐이다. 보완할 것은 공역을 마친 후에 나에게 그 사실을 기문으로 남길 것을 권유했으나 더 고사하지를 못해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타인들의 선의에 따라 위와 같이 간략하게 기록했다.

단기 4321년(서기 1988년) 무진 월 일

광산 김영환 삼가 쓰다.

※ 번역 : 위창복